

연꽃생협, 취약계층에 의류 2천여 점 전달

취약계층을 위해 의류 모연 사업을 펼쳐온 연꽃생협이 연말 기부를 통해 희망한다.

연꽃생활협동조합(이사장 전주호, 이하 연꽃생협)은 지난 11월부터 ‘연꽃사랑기’ 사업을 실시해왔다. ‘연꽃사랑기’는 사찰에서 천도재나 백중기도를 올린 후 생기는 의류 및 잡화를 취약계층에 전달기 위해 모집해 온 사업이다.

이에 연꽃생협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화계사, 광림사, 천보암 등에서 기부 받은 속옷 및 내복 700점, 겨울용 헌옷 800점, 치약·치솔 등 470점 등 의류 1,970점을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 전달한다.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서울시에 있는 40개 노숙인시설 협의회로, 불교계에선 종로 보현의 집, 영등포 보현의 집, 성동구 게스트하우스 등 속해있다.

전주호 이사장은 “2016년엔 2만 5000점 이상의 속옷과 신변잡화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연꽃사랑기 사업이 널리 홍보되어 사찰기도 후 발생되는 속옷 등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회향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장학승’ 선정

총 19명...계율·문화계 전공 우선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가 구랍 16일 2016년 종단 장학승으로 국내 대학원 5명, 해외 대학원 5명, 사찰승가 대학원 9명 등 총 19명의 스님을 선발했다. 국내의 대학원 및 사찰승가대학원에 재학 중인 31명의 스님이 신청한 가운데 계율, 한국불교사(근현대) 불교문화 등 연구자가 많지 않은 분야를 전공한 스님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국내 장학승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의 진흙스님(대승불교)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의 무진스님(불교문화-문화제)과 선효스님(불교문화-문화제), 동국대대학원 박사과정 금강스님(계율)과 보희스님(계율) 등 5명이다.

국의 장학승은 일본 도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경스님(계율) 중국 칭화대 박사학위과정인 활산스님(불전언어) 미국 UCLA 박사학위과정인 보일스님(대승불교) 외에 영국 브리스톨대 석사과정인 효은스님(초기불교) 스위스 로잔대 석사과정인 혜준스님(초기대승)이다.

이밖에도 선문초기불교승가대학원 원산, 법인스님, 동화사불교승가대학원 만경스님, 청암사불교승가대학원 해림, 혜정, 현공스님 등이다. **신성민 기자**

원효·일연 스님 머물던 인각사 난개발에 ‘위기’

철도공단 복선전철건설 발표에 불교계 반발 ‘고조’

경북 군위 인각사 인근에 신설되는 복선전철건설사업에 대한 불교계 반발이 빚발치고 있다. 복선전철화와 함께 건설되는 화북터널이 사찰 뒷산을 관통하면 불교문화자산으로서 인각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음 스님은 구랍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인각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 일연 스님이 중창한 뒤 이곳에서 <삼국유사>를 저술한 역사적 사찰”이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불교 및 한국사의 중요한 지역인 인각사 일대는 입체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음 스님은 불교문화자산 훼손에 대한 불교계 관심을 재고하며 “국책사업·개발·편리성 등 갖가지 이유로 인각사가 훼손당한다면 다른 불교문화자산도 업신여길 것”이라며 “불교계가 나서 화북터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불교 유산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자연과 수평환경을 보호하는 길이자 포교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음 스님은 종단에 대해 △중

단 차원 강력한 반대활동으로 노선 폐기 또는 1km 이상 이격을 이끌어낼 것 △인각사도량수호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는 △화북터널 노선 변경 △인각사 지역 보호대책 강구 △문화재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근원적 정책 변화 등을 촉구했다.

복선전철·화북터널 공사 추진
터널~대응전 이격거리 단 650m
역사·문화적 가치훼손 우려
“지켜내자” 불교계 반발 확산

아울러 인각사 주지 대법 스님도 인각사 인근 복선전철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및 노선변경을 요구하며 구랍 23일 오후 1시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구랍 4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 의성지역 착공식’을 개최하고, 2018년 6월을 완공목표로 전 구간 공사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선전철과 함께 건설되는 화북터널은 길이 9.18km의 장대 터널로, 인각사 대응전으로부터 이격거리(대지경계선에서 마감까지 거리)가 채 1km가 되지 않는 650m다. 이대로 공사가 추진될 시 환경 파괴 및 불교문화재 훼손에 대한 불교계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인각사는 제10교구(본사 은혜사) 말사로 643년(선덕여왕 12년)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그 뒤 1307년(충렬왕 33년)에 일연 스님이 중창하고, 이곳에서 <삼국유사>를 저술했다고 알려져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돼 왔다. 주요문화재로는 보물 제428호 보각국사탑 및 비, 사적 제374호 인각사지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국가사업으로 ‘인각사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약 126억원 예산을 배정, 현재까지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일면 스님, 동국대 이사장직 전격 사퇴

구랍 18일, 직무대행으로 성타 스님 지명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이 이사장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성타 스님을 지명했다. 일면 스님은 구랍 18일 동국대 일산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재학생과, 25만 동문, 종단과 종교단체들 지난 9개월간 심려를 끼쳐드리고 화합으로 이끌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며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

다. 모두 가슴에 다 안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동국대는 109년간 스님들이 끼니를 굶어가며 모은 삼보정재로 만든 종합학교”라며 “학교운영을 맡아보니 문제 근원은 종합학교를 개인소유물로 삼으

동국대 사태 수습 결단 내려
건강문제로 병원 입원 상태

려는 욕심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됐다. 합리적인 운영원칙을 세우려고 했으나 오랜 악습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사퇴와 함께 성타 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동국대 정관에는 이사장 사퇴 시 직무대행을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사무처 측은 일면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입원한

상태이기에 사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사 스님들 중에는 제일 경험이 많고, 승합이 많고, 지혜도 많기 때문에 다른 이사님들이 잘 따르지 않겠냐 해서 성타 스님을 지명을 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저의 이사장 퇴진과 동시에 9개월간 환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이사회서 결의한 전 임원 자진사퇴 약속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직무대행 스님의 행보를 가깝게 헤드리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사직 사퇴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맹화 절도후으로는 물러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연임된)이사직은 이사회에서 사퇴 순서가 정해지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하지만 맹화건을 빌미로 한다면 수긍할 수 없다. 같은 동등한 이사로서 순번을 정해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 중으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병동에 있는 안재택 이사가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타국서 송년, 새해 맞이 외롭지 않아요”

꿈을이루는사람들, 외국인근로자 송년위로행사



구랍 20일 구미 마하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송년위로행사서 이주민 노동자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연말연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설렘으로 들떠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지역만리 고향에 가족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 시기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 쌓이는 때이다. 이들을 위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이 나섰다.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구랍 20일 구미 마하이주민센터에서 인도네시아·중국·캄보디아·스리랑카 등 이주노동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외국인근로자 송년위로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묵은 스

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마술쇼·한국 가요 부르기·방한용품 나눔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자원봉사로 참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체류지원 및 고충상담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캄보디아 출신 라다 씨는 “최근 사업장 변경을 위해 컴퓨터에 입소해 지내던 중 송년행사에 참가하게 됐다.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잘 지나고 고향친구들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 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기를 높여 건강한 한국생활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동양고전서 삶의 지혜를 찾는다

일지암, 오는 17~31일 청소년 인문고전 학당

동양 고전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인문 강좌 캠프가 청소년들의 겨울 방학을 맞아 열린다.

전남 해남 대홍사 일지암(주지 법인)은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박 15일동안 ‘제1회 청소년 인문고전학당’을 개최한다.

이번 인문학당에서는 다양한 동양고전을 현대사회 맥락에 맞춰 해석하고 그 가치를 되새겨 청소년들의 몸 살림, 마음 살림, 생각 살림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강좌는 <사서정선(四書精選)> 고전 강독(법인 스님/교장), 중국 고전에서 뽑아낸 고사(古事)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고사 강의(최재희/교감), 시와 음악(박양희/명상음악가), 자와 마음살림(김미화/다도사범), 우리가락을 통한 풍류(이병채/국악교사) 등이 진행되며 명상, 산책, 암자 순례도 함께 이뤄진다.

인문고전학당에서 참가 대상은 중학생이며 △공양, 청소, 세탁 등 모든 의식주 생활은 참가 학생들이 스스로 한다 △스마트폰 및 일체의 인터넷은 금지 한다 △학당 공부 기간동안 참여 학생을 상호간은 존칭을 사용한다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학당 마지막 날에는 스스로 공부

한 결과물을 테드식 강연으로 발표하며 마무리하게 된다.

참가학생 선발은 오는 1월 8일까지 참가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와 맹자의 ‘측은 지심’에 대한 에세이(A4 1매, 10포인트, 신매장)를 작성해 이메일(cjh6756@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심사를 통해 단 8명만 선별한다.

일지암 인문학당은 “향후 방학 때마다 청소년인문고전학당을 열 계획이며, 3월부터는 매월 1~2회씩 2박 3일 또는 4박 5일 일정의 성인인문독서캠프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과 일지암은 조선 후기 새로운 학문과 문화예술이 생성되는 공간이었다. 18세기 실학이 주도하던 시대에 선비화가 엮던 공재 윤두서는 집안의 실용적 학풍을 주도하며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외손 정약용에게 영향을 미쳐 그가 실학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일지암은 추사 김정희와 다성이라 일컫는 조의선사, 남창문인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 등의 석학들이 학문과 예술적 공감대를 이루며 교류했던 곳이기도 하다. 문의) 010-9262-7300 **신성민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총무원장: 헤인 사서실장: 대산

■ 총무원

부원장: 동안, 도불	교육원장: 상산	회계원장: 천불
	서봉금산	교육부원장: 덕산
총무부장: 법산	교육부장: 대산	규정부장: 월성, 법안
재무부장: 헤만	교육국장: 진산	규정국장: 영암, 지산
교무부장: 헤일		호법부장: 성산, 지호
사회부장: 정현	포교원장: 정산	호법국장: 범성
문화부장: 지운	포교부장: 범진	감찰원장: 정오
총무국장: 월산	포교국장: 무량	감찰부장: 백산지건
재무국장: 정일		감찰1국장: 법산
교무국장: 지성	기획원장: 헤타	감찰2국장: 동오
사회국장: 법일	기획실장: 노사나	감찰3국장: 인산
문화국장: 선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헤인 편집인: 문화부장: 대산
 편집기자: 권소라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사회국장: 법산
 유현석

이사: 헤원, 정산,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원 로 원: 성민, 헤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준담

방 장: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인산장(경기도무명문화제): 수원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총무원장: 상산	경남총무원장: 백산 지건	전북총무원장: 범성
경기총무원장: 도불	경남남부총무원장: 천산	제주총무원장: 청호
경기서부총무원장: 자명	경남서부총무원장: 지명	울산총무원장: 범철
경기남부총무원장: 지안	경남창원총무원장: 지원	일본오사카총무원장: 인쇄
인천총무원장: 헤원	경북총무원장: 덕운	일본동경총무원장: 정대
강원총무원장: 광덕	부산총무원장: 서봉금산	미국뉴욕총무원장: 성산
충북총무원장: 학산	부산북부총무원장: 수산	중국남경총무원장: 해산
충남총무원장: 혜덕	전남광주총무원장: 지각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에도현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립

서울총림 헤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주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동방국제지구대표: 김연태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김준자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총무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불교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